



현대차 'i30N라인'

'2018년형
메르세데스-AMG GT'

질주 본능 깨워라... 고성능차 각축

현대차 'i30 N라인' 내일 국내시장 출시

기아차 터보 엔진 갖춘 'K3 GT'로 관심 몰이

벤츠 AMG, S클래스부터 SUV까지 다양

고성능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BMW 등 고급차 브랜드가 휩쓸고 있는 고성능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도 뛰어들면서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감성을 기본 차량에 적용한 첫 모델인 'i30N 라인'의 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오는 24일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N은 현대차가 만드는 양산차의 고성능 버전을 의미하는 서브 브랜드로, 메르세데스-벤츠가 고성능차 모델에 'AMG'를, BMW가 'M'을 붙여 출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고성능차는 일반 양산차의 엔진이나 변속기, 서스펜션 등을 튜닝해 스포츠카 수준의, 또는 이를 능가하는 주행성능을 갖도록 개조된 차를 말한다.

N 브랜드는 '운전의 재미' (Fun to Drive)를 브랜드 철학으로 삼아 역동적이고 날렵한 주행성능을 추구해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출시되는 i30 N 라인도 현대차 고성능 N 상품 포트폴리오상 기본 차와 고성능 N의 중간에 있는 모델로, 고성능차 입문과 저변확대를 위해 개발된 차종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성능 라인업 'N'인 벨로스터 N을 출시한 바 있다.

앞서 유럽에서는 준중형 해치백 i30의 고성능 버전인 'i30 N'을 지난해 출시했다. 'i30 N'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907대가 판매돼 출시 이후 월간 판매량이 최대를 기록하는가 하면, 올들어 8개월간 3771대가 팔려 올해 유럽 판매 목표치(2800대)를 넘어선 상태다.

현대차는 BMW 고성능차 개발총괄책임

자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시장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아차는 고성능 차량 전용 엠블럼인 GT를 도입해, 최근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한 터보 엔진을 갖추는다면, 실내에서 들리는 주행음을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주는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ESG)'를 적용한 K3 GT를 선보여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AMG가 꼽힌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AMG는 '1인 1엔진'이라는 철학에 따라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량을 내놓고 있다. '1인 1엔진' (One Man - One Engine)은 엔지니어 한 명이 AMG 엔진 하나의 조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한다는 뜻이다.

AMG는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S클래스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여러 모델로 출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메르세데스-AMG GT는 SLS AMG에 이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두 번째 스포츠카다.

BMW의 고성능 브랜드는 M으로 지난 1984년 M5 모델이 처음 출시됐다. 뉴 M5는 M모델 최초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췄고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K3 GT'

무너져가는 車 산업 생태계

1분기 1차 협력부품업체 47.2% 적자... 2·3차 업체 이탈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1분기 적자를 내고, 건실했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위기, 대안은 있는가' 학술대회에서 "30여 년간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면서 요즘처럼 위기였던 적이 없었다"며 "언제든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사(66.7%)는 적자로 전환했다.

89개사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8.6% 줄었으며 영업이익률은 0.9%에 그쳐 작년 1분기 3.7%에 비해 2.8%포인트나 감소했다.

총 28조원 규모의 자동차산업 여신 중 1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인 2차·3차 협력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2015년 기준 900만대였던 국내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이 800만대로 줄고 현재 44%인 국내 생산비율이 글로벌 업체 평균 수준인 31.8%로 감소하면, 부품업체의 가동률이 38%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내 완성차업체가 제품 및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부품업체들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 세단' 그랜저 신형 출시

세계 최초 동승석 시트백·쿠션 각도 조절 등 첨단 사양

2019년형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됐다. 세계 최초로 동승석 릴렉스 콤포트 시트가 적용되는 등 상품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릴렉스'이란 릴렉스(relax)와 포지션(position)을 합친 말로, 운전석이나 동승석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승석의 시트백과 쿠션 각도를 조절해 승객의 자세가 무중력 중립자세가 되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승객의 체압을 약 25% 줄이고 지지면적을 약 18% 늘릴 수 있어 승객의 엉덩이와 허리에 집중되는 하중을 완화해 피로도를 줄여준다.

또 2019년형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운전자의 체형 정보에 맞게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위치를 자동 설정해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과 터널 진입 및 워셔액 작동 시 자동으로 내기 모드로 전환하는 '자동 내기 전환 시스템'도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안전사양과 고화질 DMB, 사운드하운드 등 인포테인먼트 사양은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된다.

실내의 온도, 일사량, 공조 설정 온도에 따라 열선·통풍 시트나 열선 스티어링 휠을 작동하는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가 적용됐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과속 카메라까지의 거리 표시 기능이 추가됐다.

판매 가격은 2019년형 그랜저의 경우 ▲가솔린 2.4 모델 3112만~3608만원 ▲가솔린 3.0 모델 3495만~3873만원 ▲가솔린 3.3 모델 4270만원이며 2019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576만~3993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육각형사용
해당성숙속옷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